

〈陶冑妖夢記〉를 통해 본 꿈의 서사와 변용

— 근대 지식인의 심리적 불안과 불교적 사유를 중심으로 —

김 영 옥*

〈目次〉

- | | |
|--------------------|----------------------|
| I. 들어가며 | IV. 꿈의 사유: 자각으로서의 치유 |
| II. 꿈의 형식: 분절과 불연속 | V. 나오며 |
| III. 꿈의 의식: 쾌락과 불안 | |

I. 들어가며

〈陶冑妖夢記〉는 韓邦慶의 傳奇형식의 문언단편소설로, 《海上奇書》(1892년)¹⁾에 연재되었다. 이 소설은 주인공 도주가 한 사찰에 머물며 지내다 꿈을 꾸면서 점점 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병을 앓게 되지만 住持의 깨우침에 병이 완쾌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이와 같이 〈도주요몽기〉는 ‘현실→꿈→깨달음’이라는 전형적인 몽유 소설²⁾의 서사 구조³⁾를 따르고 있다. 그런데, 도주의 꿈은 소설의 제목이 ‘요

* 부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조교

- 1) 한방경은 1892년 2월 상해에서 《海上奇書》라는 소설잡지를 간행하였다. 이 소설 잡지는 《太仙漫稿》, 《海上花列傳》, 《臥游集》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太仙漫稿》에 〈陶冑妖夢記〉를 비롯한 한방경 자신이 창작한 문언단편소설이 실려 있다. 현재 12편의 문언단편소설이 전해진다.
- 2) 唐 傳奇부터 清代의 《聊齋志異》에 이르기까지 꿈을 제재로 한 문언단편소설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본고에서는 작가의 주제 사상과 철리적 의미를 전달하고자 꿈의 기제를 운용한 작품들에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唐 傳奇的 《枕中記》, 《南柯太守傳》, 《櫻桃

몽'인 것처럼 다른 몽류 소설의 꿈과 다른 독특한 특징을 지닌다. 그것은 꿈의 내용과 전개에 있어서 찾아볼 수 있는데,⁴⁾ 그 특징은 대략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기존의 몽류 소설은 입몽의 순간부터 각몽의 순간까지 현실 세계와 구분되는 견고한 꿈의 경계 안에서 기승전결을 갖춘 꿈의 서사를 구현한다.⁵⁾ 그에 반해 <도주요몽기>의 꿈은 여러 개로 분절되어 있고, 또한 불

青衣>와 清代 <聊齋志異>의 <續黃粱>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郭麗, <記夢作品的演進—從唐傳奇徒<聊齋志異>>, 曲阜師範大學, 2003, 1-34쪽.

- 3) <枕中記>는 주인공 盧生이 邯鄲의 한 주막에서 도사 呂壼을 만나고 그 도사가 주는 베개를 베고 눕기까지의 현실과 40여 년의 세월동안 부귀영화를 누리다 죽음을 맞이하는 꿈과 꿈에서 깨어난 후 人生如夢의 이치를 깨닫고 길을 떠난다는 기본적인 이야기 구조를 취하고 있다. <南柯太守傳>도 주인공 淳于棼이 술에 취해 잠들기 전까지의 현실과 20여년의 영욕의 세월을 보내고 고향으로 돌아가기까지의 꿈, 그리고 꿈에서 깨어난 후 인생 무상함을 깨닫고 道門에 귀의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櫻桃青衣> 역시 주인공 范陽출신의 慮子가 수차례 과거에 낙방하다 어느 精舍에서 강연을 듣다 낮잠을 자기까지의 현실과 어린 여자를 만나 혼인을 하고 20여년을 영화를 누리는 꿈 이야기, 그리고 갑자기 꿈에서 깨어난 후 人生如夢을 깨닫는 서사 구조를 취하고 있다. <聊齋志異>의 <續黃粱>은 앞의 세 작품보다 다소 복잡한 서사 구조를 취하고 있으나, 주인공 曾孝廉이 사찰에서 비를 피하다 잠이 들기까지의 현실과 고관이 되어 권력을 누리다 지옥으로 떨어지고, 다시 거지의 딸로 태어나 학대를 받고 살인범으로 죽기까지의 꿈, 꿈에서 깨어난 후 재상이 되겠다는 뜻을 접고 입산하여 종적을 감춘다는 기본 내용으로 역시 현실-꿈-깨달음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王夢鷗 撰, <唐代小說研究2集>, 藝文印書館印行, 1973, 196-208쪽. 萬雯雯, <一枕黃粱兩場夢—比較分析<聊齋志異·續黃粱>與<枕中記>的宗教世俗化>, <美與時代(下)>第3期, 2013, 104-105쪽. 周美瓊, <進取與突圍—論<枕中記>與<櫻桃青衣>的“夢中人生”和“人生如夢”>, <牡丹江師範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第4期, 2007, 27쪽.
- 4) 문언단편소설의 꿈의 기제는 문학 속에서 다양한 문학적 장치로서 수용되어 왔다. 육조 지괴, 당 전기를 거쳐 청대의 <聊齋志異>에 이르기까지 문언단편소설 가운데 꿈을 제재로 한 작품들은 현실과 현실 사이에 꿈을 삽입하여 또 다른 현실 세계를 보여주는 액자구조를 취하거나, 꿈의 상징적·예언적 기능을 활용하여 스토리 전개에 있어서 예술적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王聿發, 劉艷玲, <管窺<聊齋志異>夢創作的藝術功效>, <安康學院學報> 第21卷 第5期, 2009, 62-64쪽.
- 5) <聊齋志異>의 <蓮花公主>는 꿈이 진행되는 동안 두 번의 입몽과 각몽이 있

연속적으로 전개된다. 그리고 각각의 꿈들은 언제나 완결되지 않은 채로 갑자기 종결된다. 다시 말해 <도주요몽기>는 꿈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하고 혼재되어 불완전한 꿈의 구조를 보여준다.

또한 일반적인 몽류 소설이 인물의 일생을 시간적 순서대로 보여주고 있다면, <도주요몽기>는 여러 개의 꿈들이 분절됨에 따라 인물의 현재적 상황에 집중한다. 이에 따라 <도주요몽기>는 자연히 사건보다 인물의 내면 심리가 두드러진다.

따라서 기존의 몽류 소설이 꿈을 통해 인물의 일생을 보여주며 입신양명이라는 사회적 욕망⁶⁾의 허망함을 일깨워 주고자 하였다면, <도주요몽기>는 꿈을 통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개인의 감정과 심리를 보여줌으로써 마음의 본성을 깨닫는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도주요몽기>는 傳奇 소설의 전통적인 형식과 몽류 소설의 전형적인 서사 구조를 계승하고 있으면서도 분절되고 불연속적인 꿈의 서사세계와 꿈속에서의 다양한 감정의 경험을 보여주는 새로운 꿈의 세계를

다. 그러나 첫 번째 각몽에서 잠시 꿈이 중단되나, 두 번째 입몽 이후의 꿈은 앞의 꿈을 이어간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두 개의 꿈이 아니라, 하나의 꿈의 세계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 6) 《枕中記》, 《南柯太守傳》, 《櫻桃青衣》 모두 꿈을 통해 입신양명을 통해 부귀공명을 누리하고자 하는 당시 지식인들의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곧 그 시대의 사회적 욕망으로 이해할 수 있다. 《聊齋志異》의 《續黃粱》은 꿈을 통해 탐관오리와 통치자들을 비판하고 있으나, 이 또한 재상이 되어 부귀영화를 누리하고자 했던 주인공의 염원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욕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王雅娟은 그의 논문 〈夢與人生與人生如夢-《枕中記》與《南柯太守傳》의敍事特徵解讀〉에서 당대 지식인이 과거급제를 통해 부귀를 추구하고자 한 것은 당시 지식인의 보편적인 심리라고 보았다. 趙利群은 그의 논문 〈從《續黃粱》看浦松齡的批判現實主義〉에서 《枕中記》는 부귀공명을 추구하는 지식인을 풍자하고 있으나 반면 당시 사회의 일반적인 유산계급의 사상적식 속에 자리 잡은 출세욕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속황량》의 주인공 증효렴은 전형적인 봉건 관료를 대표하는 인물로 보았다. 王雅娟, 〈夢與人生與人生如夢-《枕中記》與《南柯太守傳》의敍事特徵解讀〉, 《內蒙古電大專刊》2007年 第11期, 52-53쪽/趙利群, 〈從《續黃粱》看浦松齡的批判現實主義〉, 《瀋陽教育學院學報》 第3期, 1996, 8-11쪽.

그리고 있다.

이에 한방경 자신도 그의 문언단편소설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나의 작품은 비록 전기(傳奇)가 위주이지만, 모두 일상의 정리(情理) 속에서 그 기이함을 찾거나, 혹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거나, 혹은 새로운 이치를 세우고 있으며, 신선요괴의 이야기는 전혀 없다. 이것이 바로 나의 작품이 옛 사람의 작품의 틀에서 탈피한 이유이다.”⁷⁾

위의 인용문에서 말하고 있는 ‘일상의 정리 속에서 그 기이함을 찾는다는 것, 새로운 의미와 이치를 부여하고 세우는 것’은 다름 아닌 마음의 관찰이고 탐구이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의 본질을 일깨워주려고 한 대표적인 한방경의 작품이 바로 <도주요몽기>인 것이다. 그가 말하고 있듯이 ‘傳奇’라는 전통적 요소와 ‘일상의情理’라는 새로운 발견이 <도주요몽기>에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전통과 근대의 공존이라는 전환기적 특징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필자는 <도주요몽기>의 이러한 소설사적 의의에 주목하며 꿈의 서사적 특징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2절에서는 도주의 꿈의 서사를 중심으로 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제3절에서는 도주의 꿈의 내용을 중심으로 꿈속에서 도주의 다양한 감정과 심리를 살펴보고자 하며, 제4절에서는 소설의 결말을 중심으로 도주의 병인과 그 치유의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II. 꿈의 형식: 분절과 불연속

앞 절에서 언급하였듯이 <도주요몽기>의 꿈은 여러 개로 분절되어 전개

7) 茲編雖亦以傳奇爲主，但皆于尋常情理中求其奇異，或另立一意，或別執一理，并無神仙妖鬼之事。此其所以不落前人窠臼也。”韓邦慶，《海上花列傳》，《太仙漫稿》，〈例言〉，人民文學出版社，1999，557쪽.

된다. 도주의 꿈이 여러 개로 나누어지는 것은 도주가 외부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며, 또한 도주가 머물고 있는 공간적 특징과도 관련이 있다.

먼저 도주가 머물고 있는 공간의 특징을 살펴보자.

도주는 한단(邯鄲)의 한 사찰인 대각사의 관음각⁸⁾에서 머물고 있다. 그가 머물고 있는 관음각 내부는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관음각 안에는 책상 하나, 침상 하나, 청상 외에는 변변한 물건 하나 없었다. 양쪽 벽에는 지옥변상이 그려져 있는데, 아귀들의 모습이 흉측했다. 가운데 관음보살을 모시고 있었다. …… 그 자리 뒤에 있는 여섯 폭의 병풍에는 역사 고사가 그려져 있었다. 하나는 “역수형경”, 또 하나는 “동산사부”, 또 하나는 “운천양비”, 또 하나는 “해상소무”였다. 그 중에서 두 폭은 관음상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다.⁹⁾

위의 인용문에 묘사된 관음각 내부를 보면, 단출한 가구 배치와 대비적으로 그림들이 부각된다. 네 폭의 병풍과 벽화는 각각 전국시대의 자객 형가(荊軻), 동진시기의 재상 사안(謝安), 당대의 양귀비, 전한의 명신 소무(蘇武) 고사와 지옥변상을 그리고 있다. 도주는 그의 시아에 들어오는 이 그림들을 보며¹⁰⁾ 하루하루를 지낸다.

도주의 꿈은 바로 네 폭의 병풍과 벽면의 그림들이 변형되어 나타나는 데, 편의상 그림의 순서와 제재별로 정리하여 일곱 개의 꿈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8)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은 불명확하다. 소설에서는 주인공 도주가 한단(邯鄲)의 한 사찰인 대각사의 관음각에서 지내게 된 사연만 아주 간략하게 전달하고 있다. “중주의 명사 도주는 도적의 난으로 그의 집안이 무너져 한단으로 흘러들어와 대각사 관음각을 임대하여 머물렀다.(中州名士陶冑, 以寇亂毀其家, 流徙邯鄲, 賃居大覺寺觀音閣.)” 韓邦慶, 위의 책, 558쪽.
- 9) “閣上几一、榻一, 青箱外無長物。兩壁繪地獄變相, 鬼物瘴惡。中供觀音寶座, ……座後屏風六扇, 繪故事: 一爲易水荊卿, 一爲東山謝傅, 一爲溫泉楊妃, 一爲海上蘇武, 其中二扇爲觀音所蔽, 不可見。” 韓邦慶, 위의 책, 558쪽.
- 10) “도주는 항상 고개를 들고 응시했다.(冑常仰首注目.)” 韓邦慶, 위의 책, 558쪽.

- 꿈1 : 易水荊卿
- 꿈2 : 溫泉楊妃
- 꿈3 : 地獄變相과 海上蘇武
- 꿈4 : 온천양비
- 꿈5 : 온천양비, 해상소무, 역수형경
- 꿈6 : 온천양비, 역수형경, 해상소무, 東山謝傅.
- 꿈7 : 동산사부, 해상소무, 역수형경.

꿈1에서 꿈5까지는 하룻밤의 꿈이며, 꿈6과 꿈7¹¹⁾은 여러 날에 걸쳐 꾸는 꿈이다. 꿈의 제제만 보더라도 꿈들이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꿈1·꿈2·꿈3은 세 폭 병풍과 벽면의 그림이 각각의 꿈으로 변형되어 나타난 것이고, 꿈4와 꿈5는 앞에서 등장한 인물들이 재등장하고 있지만, 앞의 꿈들과 연결되지 않는다. 또한 ‘사부동산’의 주인공 사안(謝安)은 꿈6에 비로소 처음으로 등장하나, 특정한 스토리 전개를 유도하지는 않는다.¹²⁾ 꿈6과 꿈7은 앞에서 등장하였던 그림 속 인물들이 한꺼번에 나타나 도주를 혼란에 빠뜨리는데, 이는 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도주의 일상을 말해준다.

도주의 꿈은 이상과 같이 그가 머물고 있는 관음각 내부의 그림들이 변

-
- 11) 꿈6은 꿈에서 설 새 없이 자신의 주관 없이 그림들의 인물들을 따라다니며 몽롱하게 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지나다 다시 꿈에서 사부동산을 만나지만 곧 바로 전쟁 때문에 도망가는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도주를 볼 수 있다. 이후 깊은 병이 든 도주는 꿈7에서 부처님과 선재용재를 만나는 망상을 경험하며 다시 그림 속 인물들에게 쫓겨 다닌다.
 - 12) 꿈속에서 사안과 도주는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는다. 도주는 그의 시야에 들어온 인물 사안을 관찰하는 제3자이다. 사안 또한 도주를 의식하고 있지 않으며, 전쟁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전쟁터로 나가는 것으로 그는 퇴장한다. “다시 가까이 가자, 동산이 탈 없이 바둑을 두고 있었다. 도주는 사부의 뒤에 숨었다. 그런데 또 기병들이 말을 타고 몰려와 산 아래에서 소리쳤다. “진나라가 또 쳐들어 왔습니다!” 사부는 실색하고 소매부리를 털고 일어났다. 도주는 그 틈에 달아나려고 했다. (比再至, 則東山無恙, 圍棋未終. 胄力隱謝傅身後, 乃有一騎周馳而呼于山下, 曰: “秦兵且至!” 謝傅失色, 投袂而起, 胄將乘間逸去.)”, 韓邦慶, 위의 책, 563쪽.

형되어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그림들은 역사고사를 제재로 한 것을 제외하면 어떤 공통분모를 갖지 않으며, 동시에 폭과 면이라는 나누어져 분리되어 있다는 제재와 형식상의 특징이 도주의 꿈에 그대로 수용되어 불연속적으로 전개되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도주는 외부 세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물이다. 그는 깊이 잠들지 못하고 꿈을 꾸고 꿈에서 깨어나기를 반복한다. 그가 얼마나 외부 세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는 도주의 입몽과 각몽의 순간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꿈1

입몽 : 낮잠이 설피 들었을 때,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면서 병풍으로 들어갔다.¹³⁾

각몽 : 황급히 서둘다 그만 실족하여 넘어져 잠에서 깨어났다.¹⁴⁾

꿈2

입몽 : 저녁 공양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누군가가 “부인께서 도학사님을 부르십니다.”라며 일어나라고 재촉했다.¹⁵⁾

각몽 : 마음이 흔들려 더 이상 조절하지 못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잠을 자고 일어나니, 해가 창문을 환히 비추고 있었다.¹⁶⁾

꿈3

입몽 : 날이 저물자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앞의 꿈을 이어가고자 하였다. …… 한참을 지나 홀로 쓸쓸히 광야를 걷는데, 황사가 자욱하고, 음산한 구름이 해를 가렸다.¹⁷⁾

각몽 : (갓난아기 도주의)팔을 잡아당기며 흔드는 자가 있었다. 도주는 성이 나서 팔을 뿌리치며 때렸다. 뜻밖에 맞은 사람은 소무가 아니라, 사미가 도주에게 저녁 공양하라고 부르고 있었다.¹⁸⁾

13) “晝寢未熟，倏覺身栩栩然飛上屏風。” 韓邦慶，위의 책，558쪽.

14) “惶急失足，踣而寤。” 韓邦慶，위의 책，558쪽.

15) “既飯而寢，覺有人促之起，曰：夫人宣召陶學士。” 韓邦慶，위의 책，559쪽.

16) “心搖搖不復可制，既而寐，寐而覺，旭日曚曚滿窓矣。” 韓邦慶，위의 책，559쪽.

17) “日既晡，坐而假寐，欲續前夢。…久之，乃若踽踽行曠野，黃沙漫漫，愁雲翳天日。” 韓邦慶，위의 책，559쪽.

꿈4

입몽 : 아침이 되자 매우 피곤하여 잠간 책상위에 엎드렸다. 그러자 장중한 성벽에 금으로 쓴 “풍도옥” 세 자가 보였다.¹⁹⁾

각몽 : 그러나 컷가에 사미가 도주를 깨우며 아침을 먹으라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아주 가깝고 심하게 다그쳤다. 도주는 그 소리에 대답하지 않고 …… 순간 보이지 않고 자신만 관음각에 있는 것을 보았다.²⁰⁾

꿈5

입몽 : 다음날 아침, 쥐가 관음보살좌 아래에서 펄쩍 뛰어 올라 짹 짹 거렸다. 도주는 단청이 상할까 병풍을 흔들며 놀라게 했다. 쥐가 병풍 뒤로 달아나고 나서 작은 소리로 물었다. “누구세요?” 마치 녀노교 목소리 같았다.²¹⁾

각몽 : 칼이 한 번 내리치자, 몸통과 머리가 떨어져 나갔다. 도주는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꿈이었다.²²⁾

이상은 꿈1에서 꿈5까지의 입몽과 각몽의 순간을 묘사한 것이다.²³⁾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설핏 잠이 들 때, 피곤해서 잠깐 졸 때, 혹은 잠자리에 눕자마자 꿈속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꿈속에서 실족하는 순간,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혹은 팔을 뿌리치는 순간 꿈에서 깨어난다. 이는 도주가 숙면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도주는 시각과 청각 그리고 촉각 등 모든 감각을 외부 세계에 열어놓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는 화려한

18) “又若有牽其臂而搖之者，胄噴甚，奪臂毆之，不意所毆者非蘇武，乃沙彌方號胄晚餐。” 韓邦慶, 위의 책, 560쪽.

19) “且而倦甚，姑試隱几，則城垣巖然，金書酆都獄三字。” 韓邦慶, 위의 책, 560쪽.

20) “然耳邊聞沙彌呼胄早餐，其聲近而逼。胄故不應，…瞬息不見，惟見己身猶在觀音閣中。” 韓邦慶, 위의 책, 561쪽.

21) 翌旦，有鼠出于觀音座下，跳踉奮囓。胄恐傷丹青，撼屏風而驚之。鼠遁入屏風後，作小語問曰：誰耶？似是念奴聲。韓邦慶, 위의 책, 561쪽.

22) “刀光一揮，身首異處。胄自謂死矣，而不知非死也，夢也。” 韓邦慶, 위의 책, 562쪽.

23) 꿈6과 꿈7은 꿈에 시달리는 도주의 일상을 표현한 것으로 입몽과 각몽의 순간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도주는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헤매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은 제외하여 살펴보았다.

선과 색으로 표현된 그림이라는 시각적 대상, 짹짹거리는 쥐 소리와 그를 불러 깨우는 사미의 목소리 등의 청각적 자극, 그리고 그를 흔들며 깨우는 사미의 촉각적 행위 등 외부세계에 민감하여 반응하며 꿈을 꾸고 꿈에서 깨어나기를 반복하였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도주는 꿈을 지속하려하거나 혹은 꿈을 꾸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꿈을 제어해보려고 한다.²⁴⁾ 그런데 오히려 도주의 꿈은 그의 의지의 반작용처럼 꿈을 이어가고자 할 때는 예기치 않는 새로운 꿈으로 전환되면서 단절되고, 악몽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는 변형된 악몽이 이어졌다. 이 또한 도주의 꿈이 불연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이러한 도주의 민감한 성격은 당시 시대적 상황과 연결 지어 이해할 수 있다. <도주요몽기>가 연재된 19세기 말의 중국은 아편전쟁의 발발로부터 약 반세기를 보내고 있었고, 그동안 계속된 내외외란으로 견고한 성채로 비유되는 전통사회가 와해되면서 근대사회로 진입하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었다.²⁵⁾ 이러한 시기를 살아가는 지식인들은 서양의 영향을 감지하면서도 전통적인 교육, 사상과 관습 등 제반의 생활방식을 버리지 못했다. 한방경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그는 1890년에 《申報》에 실은 사설 〈極說〉에서 서양의 학문을 선망하는 뜻을 내비치고 있으면서도 1891년 마지막으로 과거시험에 응시하며 전통사회에서 요구하는 출세의 길에 대한 미련을 쉽게 접지 못했다.²⁶⁾ 이와 같이 이 시기의 지식인들은 사회의

24) 도주는 양귀비와 만나는 꿈 이후 계속 양귀비를 만나는 꿈을 꾸려고 하였고,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다시 소무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꿈을 꾸고 난 뒤에는 두려움에 꿈을 꾸지 않으려고 잠에 들지 않았다.

25) 청왕조는 1830년대 이래로 내외외란으로 곤경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중국내에서는 태평천국, 옹군, 회교도 반란, 의화단 등의 사건들이 연이어졌고, 외부에서는 아편전쟁, 애로전쟁, 청일전쟁, 중불전쟁 등 끊이지 않았다. 19세기 말엽에 이르러 청왕조는 이전의 시대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었다. 이는 1794년 건륭제를 알현한 메카트니가 중국을 노후하고 괴이한 일류진함으로 비유하며 ‘난파선처럼 한동안 표류하다가 산산조각 날 것이며, 낮은 기초 위에서 다시 건조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언한 바가 그대로 적중한 것이기도 하다. 이매뉴얼 C.Y.쉬 저, 조윤수, 서정희 역, 《근현대중국사: 제국의 영광과 해체》, 까치, 2013, 536-548쪽.

급변을 인지하면서도 선뜻 전통사회의 수혜자의 위치를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소설의 주인공 도주는 외부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동시에 그 변화에 상응하여 움직이지 못하는 당시 지식인의 자화상이 투영된 인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도주의 꿈이 단절되고 불연속적으로 전개되는 것은 도주가 머물고 있는 공간의 시각적 대상(외부 세계)과 도주의 예민한 성격(외부 세계에 대한 반응)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Ⅲ. 꿈의 의식: 쾌락과 불안

실제 우리는 꿈을 꾸는 동안 기쁨과 근심, 사랑과 증오, 즐거움과 분노, 쾌락과 슬픔, 안락함과 두려움 등 다양한 감정을 경험한다. 그래서 어느 꿈 연구자들은 ‘감정은 꿈에 모사된다.’²⁷⁾고 표현하기도 하고, 꿈속의 감정을 통해서 현실에서의 내면 심리를 이해하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의 몽유 소설에서 만났던 꿈들은 인생의 전체를 보여주며 ‘人生如夢’이라는 철리사상을 전달하기 위한 문학적 기제로 운용되면서 꿈꾸는 자의 감정을 외면하여 왔다. 물론 住持의 말을 듣고 도주가 깨닫는 순간 병이 낫는다는 소설의 결말은 <도주요몽기> 역시 이치를 보여주고자 꿈의 기제를 운용한 소설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도주요몽기>는 그동안 외면당해왔던 꿈속 심적 활동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꿈의 현상에 비교적 근접하여 꿈을 묘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앞 절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도주의 꿈은 네 폭의 병풍 그림과 벽면의 그림의 제재가 변형되어 불연속적으로 전개되면서 외적 인과 관계가 결여되

26) 김영옥, 《海上花列傳研究》, 부산대학교, 2012, 9-18쪽.

27) 베레나 카스트 저, 원석영 역, 《꿈: 당신을 변화시키는 무의식의 힘》, 프로네시스, 2007, 83-89쪽.

어 다소 산만하게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지니고 있었다.

그럼에도 <도주요몽기>가 하나의 주제를 향해 응집하여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전개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인공의 불안한 심리와 쾌락적 감정이 내적 모티프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좀 더 부연하자면 도주는 쾌락에 대한 욕망을 추구하면서도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엄습에서도 벗어나지 못한다. 이 두 가지의 상반된 내면 심리와 감정은 추구하고 회피라는 상충되는 역학 관계를 통해 꿈을 연결하고 전개하는 주요한 동력으로 작용한다.

먼저 쾌락을 탐닉하는 도주의 욕망을 살펴보자. 쾌락과 관련된 도주의 심리는 ‘온천양비’의 그림과 관련된 꿈들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역사 속 인물 양귀비는 미인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면서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양귀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화 가운데, ‘화청지’에서 현종과의 사랑 놀음 고사는 ‘화청지’를 성적 욕망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응축되어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게 했다. 그러므로 ‘온천양비’는 성적 욕망을 가장 잘 드러내는 중국 역사 고사인 셈이다. 독자는 ‘온천양비’라는 제목만으로 화청궁, 그 속의 양귀비,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시녀들, 풍성한 과일과 요리들, 그리고 미주 등으로 채워진 화려한 장면을 상상할 수 있다. 꿈2에서 도주의 눈에 들어온 양귀비와 그녀를 둘러싼 장면을 묘사한 문장을 보자.

부인의 나이는 스물 살 정도이고, 명주 귀고리, 물총새의 깃털, 구슬이 드리워져 있고, 농염하면서도 장엄하였으며, 절세의 미인이었다. …… 화려하게 화장을 한 여자들이 시중두고, 산해진미가 풍성하였다.²⁸⁾

위의 묘사에서도 도주의 눈앞에는 화려한 양귀비가 있고, 아리따운 여인들이 도주의 시중을 들며, 온갖 진귀한 음식들이 풍성하게 쌓여있다. 이와 같이 화려한 미인들과 풍성한 음식은 그동안 절제된 생활을 하고 있던

28) 夫人年二十許，明璫翠羽，珠翹四垂，穠艷莊嚴，傾絕一世。…粉黛雲從，膾炙霧浦。韓邦慶，위의 책, 559쪽.

도주에게 깊숙이 잠재되었던 쾌락에 대한 욕망을 자극한다. 도주는 긴장하고 두려워하며 양귀비 앞에 다가서지만 휘장 너머의 양귀비를 보는 순간 더 이상 자신의 욕망을 주체하지 못한다.

힐끗 부인을 훑쳐보니, 비단 휘장 너머로 아침 안개가 피어오르듯 몽롱했다. 거친 숨을 가다듬고, 살금살금 침상에 올랐다. 마음이 흔들려 더 이상 제어하지 못하고 곧바로 잠자리에 들었다.²⁹⁾

도주는 이 꿈에서 양귀비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에게 숨겨져 있던 성적 욕구를 충족하였다. 그러나 욕망은 만족을 모르듯 그는 또다시 양귀비와 재회하기를 간절하게 갈망한다. 그래서 그는 그날 밤에도 계속 양귀비 꿈을 꾸기 위해 집중하기도 하고,³⁰⁾ 심지어 지옥의 꿈에서 끔찍한 벌을 받고 다시 양귀비의 자식으로 태어나기를 애원하기도 한다(꿈3).³¹⁾ 또한 꿈속에서 양귀비를 만나고 싶은 마음에 사미가 부르는 소리를 애써 무시하기도 한다(꿈4).³²⁾

도주는 이와 같이 양귀비와 다시 만나기 위해 온 신경을 집중하고 노력해보지만 항상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지옥으로 떨어지기도 하고(꿈3),³³⁾ 양귀비가 아닌 소무의 자식으로 태어나기도 하고(꿈3),³⁴⁾ 발걸음이 떨어지

29) 微窺夫人，相隔一絳羅帳，濛濛如籠朝霧。喘息初定，躡足登床，心搖搖不復可制，既而寐。韓邦慶，위의 책，559쪽.

30) “날이 저물자, 도주는 자리에 앉아 잠을 자며 전날의 꿈을 이어가고자 하였다. (日既晡，坐而假寐，欲續前夢。) 韓邦慶，위의 책，559쪽.

31) “冥王은 “윤회바퀴를 돌리라.”라고 명령했다. 도주는 판관에게 꾀부인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다고 했다.(冥王命付“轉輪”。胄啓判官，愿投生甝夫人爲兒。) 韓邦慶，위의 책，560쪽.

32) “그런데 귓가에 사미가 아침 먹으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아주 가깝게 들렸다. 그러나 도주는 응하지 않았다.(然耳邊聞沙彌呼胄朝餐，其聲近而逼。胄故不應。) 韓邦慶，위의 책，561쪽.

33) “갑자기 어떤 성에 이르게 되었다. ...도주는 깜짝 놀라 뒷걸음쳤다. 어느 한 귀족이 그를 붙잡아 명부루에 들어갔다.(奄至一城，...胄駭而退。一鬼卒挾之入冥府。) 韓邦慶，위의 책，560쪽.

지 않아 기회를 놓치기도 하였다(꿈4).³⁵⁾ 그러면 그럴수록 도주는 더욱 더 양귀비와의 해후에 집착한다. 그 간절함과 집착은 꿈5에서 도주가 취한 행동에서 드러난다.

도주는 앞으로 달려들어 껌부인을 와락 껌안았다. 부인이 야단을 치며 “호색가가 감히!”라고 했다. 도주가 사죄하며 “좋은 꿈은 늘 있는 게 아니기에, 혹여 사라질까 두려워서 걸레를 하게 되었습니다.”³⁶⁾

도주는 그동안 꿈속에서 양귀비를 만나기만을 고대했지만, 늘 자신의 의도와 다른 꿈들을 꾸었다. 꿈2에서 처음으로 양귀비와 만남이 이루어진 후, 도주는 양귀비와 또 다시 만나기를 갈망했으나 꿈3에서 지옥에서 벌을 받고 소무의 아들로 태어나는 꿈을 꾸고, 꿈4에서는 양귀비를 만나러 가는 도중 안내자를 놓치고 말았다. 드디어 꿈5에서 양귀비를 만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긴장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주저하지 않고 양귀비를 껌안는다. 그가 말했듯이 좋은 꿈은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는 그 순간을 또 다시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갈망하고 욕망해왔던 양귀비와의 쾌락은 갑작스럽게 닥친 전란으로 금방 사라져버린다.

이제 도주의 내면 심리에 도사리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전란과 전쟁은 도주의 꿈에 반복되는 모티프의 하나로, 전란 속에서 도주는 언제나 도망가고 숨으려 한다. 이는 형경과 사안이 용감하게 전쟁터

34) “고개를 들어 그의 어미를 흘깃 보니, ...구석에 앉아 촛불을 들고 있는 자는 수염이 허영고, 왼손에 장절을 들고 있는데, ...소무였다.(仰而睇其母, ...隅坐而執燭者, 須眉浩然, 左手杖節,蓋蘇武云.)” 韓邦慶, 위의 책, 560쪽.

35) “그러나 마음이 조급해지자 발이 어긋나고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소횡문의 걸음은 더욱 빨라 순식간에 사라졌다.(而心急足違, 蹇澁濡滯. 小橫門行益迅, 瞬息不見.)” 韓邦慶, 위의 책, 561쪽.

36) 冑直前拥號夫人, 夫人訶曰: “急色兒乃敢爾!” 冑謝曰: “好夢不時有, 懼惑失之, 寧獲戾耳.” 韓邦慶, 위의 책, 561쪽.

로 나갔던 것과 대조적이다. 전란 속에서 허둥대며 도망가는 도주의 모습에서 그의 불안한 심리와 두려움을 엿볼 수 있다.

사실 도주는 ‘도적의 난’을 피하여 한단(邯鄲)으로 흘러 들어왔으니, 애초 전란의 고통을 경험한 인물이다. 그런데 한단에 들어온 후의 도주의 일상은 얼핏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인다.

낙심한 듯 벗 하나 없이 지내며, 매일 승려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두 끼를 공양하고, 물러나면 편히 잠들었다.³⁷⁾

도주는 하루 두 차례 승려들과 함께 공양하는 것을 제외하고, 실의감(嗒然)을 안고 혼자 지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실의감은 ‘편히 잠들었다(高枕而臥)’라는 문장에서 금방 희석되어버리고 만다. 그래서 도주 자신도, 독자들도 그가 전란을 피하여 도망 왔다는 사실을 잠시 망각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한단’이라는 공간적 효력은 이미 발휘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³⁸⁾ 그러나 꿈은 도주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쾌락에 대한 욕망을 들추었듯이, 그가 회피하고 잊고 싶었던 전란의 경험들을 생생하게 되새겨 주었다.

꿈1은 도주가 사람들의 왕래로 붐비는 저자거리를 유유자적하게 걷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도주는 경이로운 시선으로 구경을 하다 저자거리의 어느 주막에서 술자리를 가지고 있는 형경을 발견한다. 형경도 그를 보고 초대하면서, 도주는 형경의 무리와 흥겹게 어울린다.³⁹⁾ 그러나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전쟁으로 흥겨운 자리는 깨지고 만다.

37) 嗒然無與爲侶，日就僧兩餐，退則高枕而臥。韓邦慶，위의 책，558쪽.

38) 피난하여 머무는 곳이 ‘한단’이라는 공간적 설정은 이미 도주가 꿈의 세계로 들어갔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39) “술기운이 돌자 귀가 뜨거워져 모자를 벗고 정수리를 드러냈다. 진무양은 다시 야차춤을 추고, 형경은 손을 내저으며 노래를 흥얼거리고, 고점리는 축을 치며 화답하며, 서로 크게 웃으며 즐거워했다.(酒酣耳熱，脫帽露頂，秦武陽復作夜叉舞，荊卿揮手鳴鳴歌，高漸離擊築和之，相與大笑樂甚。)” 韓邦慶，위의 책，558쪽.

갑자기 술집 시동이 황급히 아뢰었다. “장감의 군 삼십만이 성 아래까지 쳐들어왔습니다.” 모두들 깜짝 놀라 나가서 바라보니, 여자와 어린 아이들은 울부짖고, 노인들은 갈팡질팡하며 거리 전체가 술 끊은 듯 이수라장이 되었다.……도주는 갈 곳이 없었다. 멀리 봉황불이 성벽을 환히 비추고, 창들이 수풀처럼 뾰족 솟아 산을 덮고 내려오는 것을 보고 황급히 서둘러 그만 실족하고 말았다.⁴⁰⁾

활력이 넘치던 그곳은 순간 이수라장이 되어버렸다. 전쟁을 비유하는 횃불과 창들의 묘사는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오는 속도감을 표현하며, 그로 인하여 도주는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되고 두려움과 불안에 긴장하며 허둥거리게 된다. 이와 같이 꿈속의 전쟁터는 시각과 청각적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여 전쟁의 두려움과 불안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이는 꿈5에서의 북소리, 색색의 깃발들, 뾰족한 창들, 쏟아져 날아드는 화살들, 피가 튀기고, 살점이 떨어지는 장면묘사에서도 확인된다.⁴¹⁾

도주의 불안함은 꿈에서 깨어난 뒤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꿈5에서 칼에 맞아 ‘머리와 몸이 두 동강나(身首異處)’ 죽음을 맞이하며 잠에서 깨어난 뒤, 도주는 잠들지 못하고 잠이 들어도 몽롱한 상태에서 끊임없이 꿈에 시달린다. 그것은 바로 꿈6에서 나타는데, 꿈6은 하룻밤의 꿈이 아니라, 여러 날에 걸쳐 꿈에서 두려움과 불안함에 도망가고 쫓겨 다니는 도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도주는 이때부터 잠들지 못했다. 잡자리에 들면 전후좌우 아른거리는 것

40) 忽酒家胡倉皇報曰：“章邯引軍三十萬壓城下矣！”衆愕然出視，則婦孺號哭，老弱奔竄，闔市鼎沸。…冑無所歸，遙望烽火照城闕，戈矛如林，蔽山而下，惶急失足。韓邦慶，위의 책, 558쪽.

41) “북소리, 색색의 깃발들이 또 다시 일어났다. 눈에 천승만기의 군대에 모두 창을 내려놓거나 피 튀기며 싸웠다. ……일시에 화살들이 쏟아지니 살점이 떨어 나가고 칼이 내려치자 머리와 몸이 동강났다.(金鼓之聲，旌旗之色，又皇然起矣。向所望見之千乘萬騎皆倒戈浴血，……一時鏃矢叢集，血飛肉薄，刀光一揮，身首異處。) 韓邦慶，위의 책, 562쪽.

이 한 두 개가 아니었다. 때로는 소무를 따라 양을 치다 흉노족에게 구금당하고, 현종을 수행하는 고력사를 따라가다 안록산에게 포위당하고, 태자단을 받은 형경을 따라가다 성하에서 결전하기도 하였다. 비록 픽부인과 념노, 영신을 만나더라도 서로 호소하고 통곡하고, 잡아당기고 도망갈 뿐이었다. 하룻밤이라도 잠깐 쉬고 싶어도 될 수 없었다.⁴²⁾

위의 인용문을 보면, 도주는 잠들기를 두려워한다. 잠이 들면 구금당하고, 포위당하고, 싸움을 하며, 통곡하고, 도망가는 꿈이 되풀이 된다. 이러한 상황은 모두 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도주의 불안한 심리를 보여준다. 불안함은 꿈에서도 현실에서도 잠간의 휴식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도주는 점점 불면증에 시달리다 정신 착란을 일으키고 결국 깊은 병이 들고 만다.

이상에서 도주의 꿈은 양귀비와의 쾌락과 전쟁에 대한 불안이 주된 감정적 흐름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쾌락을 충족하고 싶어 하는 욕망과 전쟁에서 달아나고자 하는 불안한 심리가 상충되면서 꿈이 전개되지만, 결국 도주의 꿈은 불안한 심리에 의해 장악되고 만다. 그래서 도주는 불면증과 신경 쇠약과 같은 병리적 현상을 겪게 된다.

도주가 겪는 불면증, 신경 쇠약, 정신 착란 등은 한편 당시 근대인이 경험한 근대 지식인의 병리적 증후군이기도 하다.⁴³⁾ 다시 말해, 도주가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외부적 자극을 받는 것은 당시 중국의 정세와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도주는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는 근대적 자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도주의 꿈은 전통에서 근대로 진입하는 전환기 속에서 안정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내맡겨진 근대인의 불안한 심리를 보여주는

42) 顧胄自是不得寐，寐則憧憧扰扰于前者，不知凡幾：或從蘇武牧羊而爲匈奴拘囚，或從高力士扈從明皇而爲安祿山合圍，或從荊卿奉太子丹與章邯決戰于城下。雖遇虢夫人、念奴、英新，惟相與訴告慟哭，牽率奔走而已，欲求一夕之少休息而不可得也。韓邦慶，위의 책, 562쪽.

43) 이수영, 《섹슈얼리티와 광기》，그린비, 2008, 44쪽.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IV. 꿈의 사유: 자각으로서의 치유

〈도주요몽기〉의 공간적 배경은 邯鄲의 大覺寺 觀音閣이다. 실제 지명이 기도 한 ‘한단’은 당 전기 《침중기》의 공간적 배경이 되면서 꿈과 결합된 공간적 의미로 고정된다. 그래서 주인공 도주가 한단으로 흘러들어가게 되었다는 공간적 배경 제시는 현실과 대립되는 꿈의 세계로의 진입을 의미한다.

한편 한단이라는 큰 범주의 공간 아래에 도주가 머무는 대각사 관음각은 불교적 깨달음을 암시하는 공간으로 기능한다. 특히 住持의 설법을 통해 도주가 깨닫는다는 소설의 결말은 그 공간적 기능을 확인시켜준다.

이와 같이 〈도주요몽기〉의 공간적 배경은 꿈과 불교적 깨달음이라는 두 개의 범주로 그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여 주지는 도주가 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게 된 이유를 일깨워준다. 도주는 절박한 심정으로 자신의 상황에 대해 주지에게 답을 구한다. 그런데, 주지는 도주의 절박한 심정과 대조적으로 소탈한 웃음을 보이며 아래와 같이 즉답한다.

“① 이것은 요마 때문이 아니라, 바로 너 때문이다! 요마는 다스릴 수 있지만, 너라는 요마는 다스릴 수 없다. 네가 눈으로 보는 바가 없고, 귀로는 듣는 바가 없으며, 마음으로는 조작하는 바가 없고, 정신으로는 미혹되는 바가 없으면, 너는 진실로 옥처럼 영롱하고, 물처럼 맑으며, 태허처럼 고요하고 넓을 텐데, 어떻게 요마가 너를 해하겠는가? ② 너는 보고 듣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으로써 그림과 연하여 매일 그림 속의 인물, 사실, 경상을 만들어 주시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 마음과 혼을 움직이니, 기쁨, 슬픔, 애증, 희로애락이 만들어져 급기야 전도 기멸하고, 홀연 변환하니 스스로 주관할 수 없어 요마가 생기게 된 것이다. …… ③ 네가 동산으로 도피

하려고 한 것은 요마가 있는 곳에 들어갔으면서 요마를 벗어났다고 생각한 것이다. 부처님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한 것은 요마가 하는 것을 배우면서 요마를 이겼다고 생각한 것이다.”⁴⁴⁾

주지가 말하는 요지는 ①단락에 있다. 주지는 단도직입적으로 요마가 바로 도주 자신임을 일깨운다. 도주는 꿈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공포를 느끼고, 초조하며, 애통하고, 절박하며 그리고 고뇌에 휩싸이면서 점점 깊은 병이 들었었다.⁴⁵⁾ 도주는 그의 병인을 밖에서 찾으려고 했고 이에 불교에 귀의하여 불경을 외며 액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⁴⁶⁾ 그런데 주지는 도주의 병인이 바깥에 실재하는 대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일갈하였던 것이다.

보고 듣는다는 것은 다섯 가지 감각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시각·청각·취각·미각·촉각 등 다섯 가지 감각기관을 통해 대상을 감지하고, 또한 감지된 대상은 의식을 통해 인식된다.⁴⁷⁾ 그런데, 그 인식의 과정에서

44) 僧大笑曰：“是非妖也，爾也！妖可治，爾之妖不可治！當爾之目無所視，耳無所聽，心無所思，魂無所營也，爾固瑩然如玉，湛然如水，寥然廓然如太虛，安所得妖而崇之？爾乃以視聽思營與畫爲緣，日構一畫中之人物、事實、景象而屬目焉，傾耳焉，動其心以及其魂焉，爲之欣戚愛憎喜怒哀樂，至于顛倒起滅，倏忽變幻，而不能以自主，于是乎有妖。……爾將遁逃于東山，是入妖之所居而以爲去妖也；爾將求助于大士，是學妖之所爲而以爲勝妖也。” 韓邦慶，위의 책，563쪽.

45) “공포, 피로, 애통함, 절박함, 고뇌가 쌓여 병이 났다. 병 또한 위태로웠다.(積恐怖、焦勞、哀痛、迫切諸苦惱而病，病且胎。), 韓邦慶，위의 책，563쪽.

46) “사미는 불교에 귀의하고 복을 구하라고 권했다. 도주는 열심히 염불을 하고, 관음 자리 아래에 머리를 숙이며 재계를 하며 경을 외워 액에서 면하기를 기원했다.(沙彌勸其皈佛祈福，肯念良是，稽首觀音座下，愿持齋誦經以求免于厄。)” 韓邦慶，위의 책，563쪽.

47) 불교의 유심론에서 心王(마음의 중심체)은 眼識에서 아알라야식까지 8식을 말한다. 제5식에 해당되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다섯 가지 감각으로, 일정한 대상을 감지한다. 제6식에 해당되는 의식은 5식과 더불어 작용하여 감각을 분명히 인식하고 지각을 발생시킨다. 특히 제6식은 언어를 사용한 개념적 사고를 일으키는 작용을 하는 마음이다. 제7식 말라식은 선천적으로 갖추어진 마음의 심층에서 활동하는 자아의식이다. 제8식 아알라야식은 일곱 가지 식이 생기게 하는 근원적인 마음이고, 모든

사물과 경계 짓고, 마음 밖에 대상이 실재한다고 믿음으로써 미혹과 번뇌가 일어난다.⁴⁸⁾ 그래서 주지는 ‘눈으로 보지 않고, 귀로 듣지 않으며, 마음으로 조작하지 않으며, 정신으로 미혹되지 않기’를 말하고 있다. 그래야 ‘옥처럼 영롱하고, 물처럼 맑으며, 태허처럼 넓은(固瑩然如玉, 湛然如水, 寥然廓然如太虛)’ 마음의 본성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다.⁴⁹⁾

그런데 실제 도주는 그가 머물고 있는 관음각의 네 폭 병풍 그림과 벽면의 그림을 보면서, 그 그림들 속의 인물과 역사고사를 생각하고 상상하였다. 현실에서 무료하게 지내는 도주에게 이 그림들은 유일한 소일 대상이 되면서 점점 이들에게 집착하게 되어 꿈에 나타났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지가 말한 ‘그 그림을 보고, 소리를 듣고, 생각하고, 미혹됨으로써 연을 만들게 되었다(以視聽思營與畫爲緣)’는 예이다.

또한 무료하고 어떤 감정적 변화조차 포착되지 않는 도주의 일상과 대조적으로 도주의 꿈은 변화무쌍한 감정의 세계를 보여준다. 꿈속에서 도주는 그림 속 인물들과 조우하거나, 혹은 일정한 거리로 비껴나서 관찰하거나, 혹은 역사적 현장을 체험하면서 감정적 변화를 경험하였다. 형가 무리

조제를 생각하게 하는 종자를 거둬들이는 마음이다. 제7식 말라식은 아알라야식에서 생기고, 역으로 아알라야식을 대상으로 삼아 그것을 자아라고 집착하는 마음이다. 요코야마 코이치 저, 장순용 역, 《唯識이란 무엇인가》, 도서출판 세계사, 1996, 74-76쪽.

48) 요코야마 코이치, 위의 책, 1-20쪽.

49) 이는 《금강경》의 〈불수불탐분 제이십팔〉에 대하여 治父가 ‘耳聽如響, 口說如呬’라고 해석한 것과 동일한 견지이다. 이에 대하여 함허당 득통은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을 하고 있다. ‘我が 없음을 알면 곧 彼我相이 없어짐이고, 忍을 얻어 이루면, 곧 能所의 情(주관과 객관의 생각)을 잊을지니 능소의 정이 없어지면 無念智가 나타나고 彼我相이 없어지면 평등의 이치가 나타남이라. 이런 경지에 이르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에 분별이 나지 않고, 입을 열고 혀를 움직여도 분별이 나지 않으니,…… 이는 곧 밝은 거울이 사물을 비추고 같고 빈 골짜기가 소리에 응함과 같아서 치연히 비추고 응하되 비추고 응한다함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말하되 항상 모든 근에 응하여 쓰되 그 쓴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음이라. 겁의 불이 바다 밑까지 태우고 바람이 몰아쳐 산이 무너져 내리더라도 참담고 항상한 적멸의 즐거움인 열반의 모습은 이와 같다 하시니라.’ 無比 역해, 《金剛經五家解》, 불광출판부, 2005, 492쪽.

들과는 잠깐의 즐거움을 느꼈고, 양귀비와는 쾌락의 기쁨을 맛보았으며, 지옥에서는 잔혹한 형벌을 받으며 극도의 공포를 체험하였고, 소무와는 원망과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였다. 이러한 감정들은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수렴되어 도주는 그 감정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정신 착란을 경험한다.⁵⁰⁾ 이러한 경험이 바로 ‘기쁨, 슬픔, 애증, 희로애락이 만들어져 급기야 전도기멸, 홀연 변환하나 스스로 주관할 수 없어 요마가 생기게 된다(爲之欣戚愛憎喜怒哀樂，至于顛倒起滅，倏忽變幻，而不能以自主，于是乎有妖。)’는 주지의 말로 설명된다. 도주는 ‘스스로 주관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현실에서 정신착란을 경험하고 꿈에서도 헤어나지 못하였다.

도주의 정신 착란은 결국 대상이 마음 밖에 존재한다고 믿는 미망 혹은 미혹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도주는 사미의 권유대로 부처에게 귀의하여 액에서 구해달라고 경을 외우며 기도를 올린다. 실제로 부처와 선재, 용녀가 하늘에서 내려와 요마를 무찔러준다.⁵¹⁾ 그럼에도 도주는 병이 더욱 깊어지고, 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로써 그의 눈앞에 나타난 그 모든 것은 망상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⁵²⁾ 그래서 주지는 도주의 이와 같은 행동을 ‘요마가 있는 곳에 들어갔으면서도 요마

50) 이러한 도주의 일상을 소설에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홀어졌다 다시 모이고, 갔다가 다시 왔다. 정신이 어지럽고 흐릿하여 사리를 분별할 수 없었다. 도주는 점점 더 현혹되고 어지러우며, 병은 여전하고 꿈 역시 여전하였다. (散而復集，去而復來，惛恍離奇，不可方物。甯益炫惑瞽亂，病如故，夢亦如故。)” 韓邦慶, 위의 책, 563쪽.

51) “과연 부처님과 선재, 용녀가 하늘에서 내려와 도주에게 말하였다. “요마가 깊게 들었구나. 치료하지 않으면 화를 입겠다!” 이에 격문을 명왕과 관관을 불러 장군으로 삼아 그 아래에 두었고, 소머리 말 얼굴을 한 자는 대장으로 삼아, 18지옥 아귀를 거느리고 창을 돌리고 도끼를 휘두르며 요마를 벌하였다. (果見大士丈六金身與善財、龍女降自天際，詔胄曰：“妖深矣，不治且禍爾!”遂檄召冥王判官爲將軍部其下，牛首馬面者爲隊長，帥十八地獄餓鬼，輪叉掉斤而伐妖。)” 韓邦慶, 위의 책, 563쪽.

52) 이 대목에서 우리는 《金剛經》의 다음과 같은 구절을 떠올리게 된다. “若以色見我，以音聲求我，是人行邪道，不能見如來.(만약 색신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써 나를 구하면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함이라. 능히 여래를 보지 못하리라.)” 無比 역해, 《金剛經五家解》, 불광출판부, 2005, 478쪽.

를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요마의 행위를 배우면서 요마를 이긴 것이라고 착각한다(入妖之所居而以爲去妖也, 學妖之所爲而以爲勝妖也.)'고 하였던 것이다.

이상에서 주지는 도주의 병인을 마음밖에 대상이 실재한다고 믿는 미망에서 비롯된 것임을 일깨워주었다. 도주는 이를 듣고 마음의 본질을 깨닫게 되자 그 순간 병이 완쾌된다.⁵³⁾

그렇다면 작가 한방경은 왜 근대 지식인의 불안을 불교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치유하고자 한 것일까. 우선 전통사회의 유교사상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상적 대안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과거급제를 통한 입신양명의 영광은 이미 퇴색되어 갔고, 유교 사상의 요체인 충과 효사상은 전통사회의 위계질서의 붕괴로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와 같이 개인보다 사회 질서를 중시하는 유교사상은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전환되어가는 과도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서양의 사상은 수용되기까지 여전히 일정한 시간이 필요로 하였고, 이질적인 것이어서 그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불교는 중국에 유입된 이후로 전통사회에서도 유교사상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지식인의 철학사상이 되어주었다. 뿐 만 아니라, 불교의 사상 가운데 유심론은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개인이 아니라 독립적인 개체로서의 개인의 위기를 극복하고 근대인의 불안을 치유하는데 효과적인 사상으로 작용하였다.⁵⁴⁾ 이런 점에서 불교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회의 변

53) “주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주는 갑자기 깨닫게 되며 병이 다 나아버렸다. (僧之言未畢, 而甯乃遽然覺, 霍然愈.)” 韓邦慶, 위의 책, 564쪽.

54) 당시 시대에서 지식인들의 활동과 관련지어 살펴보면, 이 역시居士佛敎의 한 형태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청왕조의 부패와 내외외환, 서양의 침략 등으로 중국이 위태로워졌을 때, 楊文會, 沈善登을 중심으로 하여 譚嗣同, 黎瑞甫, 桂伯華, 章太炎 등과 같은 많은 지식인들은 불교를 통해서 구국구민의 방법을 찾아가 하였다. 이들은 불교사상을 연구하고, 불경간행을 통해 불교사상과 문화를 선양하거나, 특정한 사회 환경에서 거사단체가 주축이 되어 재난을 구휼하고, 구제하며, 교화하는 등 자선활동을 하였으며, 정도염불로 불교신앙의 사회화를 이끌었다. 潘桂明, 〈居士佛敎原流談〉, 《佛敎文化》2000年 2期, 71-73, 81쪽. 華方田, 〈清代佛敎的衰落與居士佛敎的興起〉, 《佛敎文化》2004年 4期, 23쪽.

혁이 있거나 전환기마다 그 위기를 극복하고 대처하기 위한 사상으로 그 역할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도주의 꿈은 결국 일장춘몽과 인생무상을 일깨워주고자 한 기존의 꿈과 달리 시시각각 변하는 현상 속에서 그에 따라 개인의 감정의 변화를 보여 주고 그것을 관찰함으로써 마음 밖에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불교의 사상(유식론)을 설파하기 위해 운용된 문학적 기제로 볼 수 있다.

V. 나오며

〈도주요몽기〉는 1892년 《해상기서》에 연재된 문연단편소설이다. 도주의 기이한 꿈의 세계를 다룬 이 소설은 일반적인 몽유 소설의 서사구조를 그대로 계승하면서도 기존의 몽유 소설과 차별되는 독특한 꿈의 세계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도주의 꿈을 서사형식과 내용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도주의 꿈은 단절과 불연속성이라는 서사적 특징을 지니는데, 이는 도주가 머무는 공간의 시각적 대상인 그림들과 외부세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예민한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전개로 인하여 도주의 꿈은 자연스럽게 현재적 시간에 초점을 맞추어져 개인감정의 변화를 집중적으로 보여주었다.

한편 이러한 특징을 가진 도주의 꿈은 당시 시대적 상황과 연관되어 설명되어질 수 있었으며 동시에 전환기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불안한 심리와 근대인의 병리적 징후를 읽을 수 있었다. 나아가 작가는 이러한 근대 지식인이 경험하는 병리적 징후들을 불교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치유하고자 하였다.

필자는 〈도주요몽기〉의 꿈의 서사와 내용, 그리고 소설 속에 녹아 있는 불교적 사유를 통해 근대지식인의 의식을 탐색해 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 한 편의 소설로 당시 많은 지식인들이 몰두하였던 유식불교의 고차원

적인 관념적 세계를 분석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었다. 또한 불교를 원용한 논리적 구축에 있어서 필자의 한계가 있음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소설의 “주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주는 갑자기 깨닫게 되며 병이 다 나아버렸다.(僧之言未畢, 而冑乃遽然覺, 霍然愈.)”⁵⁵⁾라는 촌철살인의 결말은 여전히 필자에게는 요원한 경지로 남아 있다.

앞으로 필자는 〈도주요몽기〉를 기점으로 하여 한방경의 《太仙漫稿》에 수록된 문언단편소설작품 가운데 〈歡喜佛〉, 〈心影說〉과 같이 불교와 관련된 작품들의 분석을 통해 불교가 어떻게 문학작품 속에 수용되었는지 살펴보고 나아가 불교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고자 한다. 이는 한편 한방경의 문언단편소설집 《태선만고》의 특징과 문학사적의 의의를 살펴볼 수 있는 작업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References>

- Han Bangqing, *Hai shang hua lie zhuan*, Beijing: Renmin wenzue, 1999.
- Wang Mengou, *A Study of the Tang Dynasty Novel 2*, Taipei: Yiwen yinshuguan, 1973.
- Immanuel C.Y.Hsu, *The Rise of Modern China*, Seoul: Kachi, 2013.
- Mubi, *The Diamond Sutra: Explanations of five monks*, Seoul: Bulguang, 2005.
- Verena Kast, *Träume: Die geheimnisvolle Sprache des Unbewussten*, Seoul: Phronesis, 2007.
- Yokoyama Koyichi, *What is āptimātratāsiddhi*, Seoul: Segyesa, 1996.
- Fiona Starr, Jonny Zucker, *Dream themes*, Seoul: Humanbooks, 2003.
- Lee Suyoung, *Sexuality and madness*, Seoul: Greenbee, 2008.
- Kim Youngok, *A study of Hai Shang Hua Lie Zhuan*, Pusan National

55) 韓邦慶, 위의 책, 564쪽.

- University, 2012.
- Guo Li, *Jimeng xiaoshuo de yanjin*, Qufu Normal University, 2003.
- Wan Wenwen, “Yizhen huangliang liangchangmeng–bijiao fenxi “Liao Zhai Zhi Yi·Xu Huang Liang” yu “Zhen Zhong Ji””, *Beauty* 3(2013): 104–105.
- Wang Yufa, Liu Yanling, “The Artistic Analysis on the Dream–Creation in the Strange Stories from a Chinese Studio”, *Journal of Ankang University* 21.5(2009): 62–64.
- Wang Yajuan, “Mengrurensheng yu renshengrumeng– “Zhen Zhong Ji” yu “Nan Ke Tai Shou Zhuan” de xushi tezheng jiedu””, *Journal of Inner Mongolia Radio & TV University* 11(2007): 52–53.
- Zhou Meiqiong, “Working–hard and breaking–through–On “The life in the dreamland” and “The life just like a dream” in the legends “Zhen Zhong Ji” And “Ying Tao Qing Yi””, *Journal of Mudanjiang Teachers College* 4(2007): 27.
- Zhao Liqun, “Cong “Xu Huang Liang” kan Pu Song Ling de pipan xianshi zhuyi”, *Journal of Puyang College of Education* 3(1996): 8–11.
- Pan Guiming, “Jushi Fojiao yuanliulin”, *The Culture of Buddhism* 2(2000): 71–73. 81.
- Hua Fangtian, “Qingdai Fojiao de shuailuo yu Jushi Fojiaode xingqi””, *The Culture of Buddhism* 4(2004): 23.

<Abstract>

“*Tao Zhou Yao Meng Ji*” is a short novel written by Han Bangqing, serialized in *Hai Shang Qi Shu*, 1982. This work succeeded the narrative

structure of the existing dream novel, at the same time created the unique ‘*MengJing*’. I attached importance to this ‘*MengJing*’ and analyzed Tao Zhou’s dreams.

First, I analyzed the way of unfolding focussing on narrative form of the dreams. Tao Zhou’s dreams are closely related to his room and his character. There are paintings in Tao Zhou’s room, he dreamed a dream relating with these paintings. Also, He was very sensitive to the outside world. As a result, Tao Zhou’s dreams were unfolded discontinuously in the plot and the flow of time.

Second, I analyzed Tao Zhou’s feelings focussing on the dream’s plot. Tao Zhou’s dreams are showed his emotions, specifically, pleasure and anxiety. But Anxiety gradually encroached pleasure. As a result, Tao Zhou could’t separated from reality and dreams, and suffered from neurosis.

Third, I analyzed the cause of Tao Zhou’s disease focussing on the end of this novel. The chief priest replied the cause of Tao Zhou’s illness from the buddhism standpoint.

Key Words : 한방경(Han Bangqing), 도주요몽기(*Tao Zhou Yao Meng Ji*), 꿈(Dream), 심리적 불안(Psychological anxiety), 불교적 사유(Buddhistic Speculation)

